

둔내벼

둔내벼는 1993년부터 장려품종으로 결정되어 보급하고 있는 양질의 내도복성을 겸비한 내냉성 극조생종으로 작물시험장 진부출장소 벼 육종연구진에 의해 육성되었다.

1. 육성경위

1981년 하계에 작물시험장에서 내냉성과 내도복성이 강한 SR11139-48-1과 수원 320호를 인공교배하여 잡종1세대를 수원에서 재배한 후 산간고냉지 재배에 적합한 조숙 양질 품종의 육성을 위하여 진부출장소에서 차세대들을 육성 선발하였다.

1989 ~ '90년이 생산력검정시험결과 우수계통으로 인정하여 진부14호로 계통명을 부여하여 1990 ~ '92년 2개년의 지역적응시험 및 1992년의 농가실증시험을 거쳐 1993년 1월의 주요 농작물 종자협의회에서 북부산간지 및 고냉지에 적응 품종으로 결정 보급하게 되었다.

2. 주요특성 및 수량성

둔내벼는 중북부 고냉지인 진부에서 출수기가 8월 3일로 소백벼에 비해 6일 정도 빠른 극조생종이다. 단간 반직립초형으로 잎은 녹색을 띠며, 벼알에는 까락이 드물게 붙어있다.

소백벼에 비해 키와 이삭이 약간 짧고 이삭당 벼알수는 적은 편이나 포기당 이삭수는 비슷하고 등숙률이 높다.

쌀알에는 심복백이 거의 없어 맑고 둥근 편이며, 도정률과 백미완전립 비율이 높아 쌀의 외관적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다.

도열병에는 중강 정도의 저항성을 보이고 있으나 기타 병해충에는 모두 약하다. 내냉성은 강한 편으로 저온에 의한 출수지연 일수가 짧고 임실 장해도 경미한 편이며 유묘기 냉해에도 강하다. 저온발아성이 양호하고 위조 및 적고현상은 발생되지 않으며 성숙기 앞의 노화도 늦은 편이다.

극조생종으로 못자리기간이 길고, 고온에서 육묘되는 경우에는 불시출수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며, 성숙기 고온 다습 조건에서의 수발아성도 쉬운 편이다.



둔내벼는 양질. 내도복 내냉성 품종으로 중북부지역의 고랭지 재배에 적합하다.

둔내벼의 일반생육특성 및 내재해성

품종명	출수기 (월.일)	간장 (cm)	수장 (cm)	주당 수수 (개)	주당 립수 (개)	등숙률 (%)	현 미 천립중 (g)	심복백 (0-9)	내냉성	내도복 성
둔내벼	8. 3	56	17	14	70	87	20.8	0/1	강	강
소백벼	8. 9	53	18	13	78	80	19.5	0/1	강	강

둔내벼의 수량성은 '90년부터 3년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결과 고랭지에서는 쌀수량이 437kg으로 소백벼에 비해 17% 증수되었다.

강원도 평창의 중북부 고랭지에서 실시한 농가실증시험에서는 쌀수량이 518kg로서 소백벼에 비해 8%가 증수되었다.

< 둔내벼의 수량성 >

품종명	생산력검정시험		지적시험(고냉지)		농가실증시험	
	쌀수량(kg/10a)	지수	쌀수량(kg/10a)	지수	쌀수량(kg/10a)	지수
둔내벼	551	105	437	117	518	108
소백벼	535	100	375	100	479	100

3. 적응지역 및 재배상의 유의점

둔내벼는 극조생종으로서 중북부지역의 고랭지 재배에 적합하다. 특히 출수가 빠르고 냉해에 강한 편이므로 표고 400-600m 지역에서의 재배에 유리하다.

이 품종은 극조생 품종으로서 중.남부평야지에 재배하는 경우 불시출수와 성숙기 수발아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바이러스병, 백엽고병 및 총해 발생이 크게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생태적응성이 낮아 높은 수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박 남규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수도육종과

(441-1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9

0331-290-6636(FAX: 0331-292-4560)

